









# 동족대결과 파쇼독재에 매여달리는 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 《인권》공세의 종착점은 도발자들의 파멸

## 식민지주구의 더러운 악습

피피페당이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유엔인권보장리사회 의제로 상정할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다. 어쩌다 허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피피페들이 유엔인권보장리사회를 반공화국핵소동을 위한 무대 삼으면서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광분하였지만 그것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의 마당으로까지 만들려고 획책한적은 없었다. 피피페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그야말로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남조선피피페들이 그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존엄을 사회주의제도와 친한군민의 입성간절이다. 피피페들은 유엔을 도용하여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영성을 흐려놓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제도와 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한군민의 입성속에 역세게 뿌리내린 철석의 신념에 위를 쏘고자 발발하고있다.

이것이 아마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의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피피페들은 아직도 우리를 너무도 모르고있다. 남조선 피피페들과 제국주의반동들의 《인권》공세에 겁을 먹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제손으로 일베세운 사회주의제도를 버릴 우리가 아니다.

사회제도의 공고성과 그 전도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달려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결연된 불개의 강국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최고준엄은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운명의 전투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혈새우를 열렬히 흠모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는 자기의 신성한 의무, 숭고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있다.

3년전 민족의 대국상기간 세계는

어려붙은 대지를 뜨겁게 녹이는 피눈물의 바다, 바에의 바다를 목격하며 자기 명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헌없는 충성과 고결한 도덕적, 그 어떤 천지공파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우리 제도의 공고성에 대해 깊이 절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까지 그대하였지만 앞으로 내외원수들의 온갖 잡소리를 강성국가건설의 거대한 동력으로 되게끔 위대한 명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묻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소공정 담 잡아먹기라는 말이 있다. 피피페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행위이다.

남을 속이고 헤치려는 흉심을 품는 자들은 거짓과 기만, 모략과 남조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피피페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도 다름없다.

피피페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너무나도 모략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란 있어본적도 없고 또 있을수도 없다. 남조선정권국이 내뿜는 이른바 북인권 문제라는것은 조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제 고향, 제 부모처자까지 버린채 도망간 인신스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막 치어낸것들이다. 피피페당이 던져주는 몇몇의 돈에 명줄을 걸고있는 추종들이 무슨 소리인 줄을 꾸며내지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피페당은 인신스레기들을 국제무대에까지 끌고가 《증언》이니 뭐니 하는 허튼 논리를 불어대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부채질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지난해 저들에게 유인합치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9명의 우리 청소년학생들

이 《처형》되었다는, 《감금》되었다는 허튼소리도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다가 그것이 세발간 거짓말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개고망신당 하였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피피페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발광적으로 맞대응하고있다. 구원내포기는 《인권》타령에 침을 뱉고있다.

피피페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소동으로 북침정전도발의 명분을 마련하고 기이로 조선반도에서 세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무자비한 보복처벌을 받을 대상은 피피페자들이다. 무분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빚어낸 엄청난 후과에 대해 경중을 울리며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피피페내부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수 없다. 피피페들은 그 어떤 모략과 속셈으로 써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성을 흐려놓을수 없고 친한군민의 굳건한 일심결연을 해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서 무슨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것과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남조선피피페들의 《인권》타령은 여기 저기에서 그 뉘레비격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무덤갈을 하는 가련한 정치중상자의 너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유신》독재의 부활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그리 말살하려는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정치를 망장판으로 만들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도탄속에 빠뜨린 친피피페정권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처지이다. 정음회국정개입사건으로 남조선이 수라장으로 되고있는것도 그것

을 말해준다.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당황망조한 피피페들은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모면하고 대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대에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의 하나는 부끄러워할을 아는것이다. 남조선은 인권유린의 암흑시대, 정치탄압으로 만들어놓고 독재와 폭압을 일삼으며 권력을 겨우 유지해가는 파쇼정권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한조파의 체면이 나 있는가. 피피페당은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경악에 당한 자들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서나 돌이켜보아야 한다.

피피페당이 제코도 못 잇는 주제에 가마귀 봉황장을 황당만 꿀을 꾸면서 우리 인민의 생명이나 생생한 사회주의를 감히 넘보는것이아말로 우리에게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체제대결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찌 보려고 발광하는 반역파들의 망동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피피페당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무릎을 꿇고 민족앞에 참사해야 할 죄악의 산만 남아있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반역무리들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피피페정권자의 지지를 떠받들어 나랏고고 피피페정체는 망부레를 흔들어놓고있다.

안으로는 악정을 일삼고 밖으로는 동족대결에 미친듯이 매달리는 피피페당이 정의의 정벌을 받고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함께 종말을 고할 날은 멀지 않았다.

남조선피피페들이 외세에게는 삼살개이고 동족에게는 미천개라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최근 피피페들의 처사가 그것을 다시금 입증해주고있다.

지금 미중앙정보국이 감행한 치명적인 고문행의 진상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세계도처에서 인권유린왕초인 미국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유엔고문반대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의 특대형인권유린법칙이 당사국 국제법정에 회부되고 유엔에서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피피페들이 상진의 극악한 인권유린행태에 대해 모르는척 하고있다. 미국내에서 그 진상이 명백히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되어 말 한마디 못하고있는 피피페들은 우리의 의지도 없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요란스레 떠돌고있다. 피피페정권자가 직접 나서서 《인권침해》니, 《우려》니 하고 계속 악담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를 걸고드는가 하면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사람들을 《외국, 파장》이니, 《사회갈등조동》이니 뭐니 하고 모해하며 《종북》소동에 피어니 되어 날뛰고있다.

사태와 골중, 동족대결에 미쳐도 참 더럽게는 미쳤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 무슨 《보편적 가치》를 운운하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매달리는 피피페들의 태도가 얼마나 모순된것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사건을 위해서라면 검은 것도 흰것이라고. 무서운 것은 철치한 친미주구, 식민지노복이 바로 남조선피피페들이다.

현실은 피피페들이 진심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족을 모해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너울을 쓰고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광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피피페당이 흉악한 인권유린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한사코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는것은 다름내 현인이 있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진의 환심을 사고 미국에

출린 비난과 규탄의 화살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돌리려는것이다. 다시 특등친미주구의 추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 비굴성과 대국노적기질은 만사사람의 조소와 역겨움만을 자아내고있다.

피피페들은 지금 저들이 미국과 작당하여 꾸미는 《북인권》문제를 유엔인권보장리사회 의제로 상정시키고자 발발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정권을 자아내는 미국의 고문행이 폭로된것은 상진을 등에 업고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공세를 강화하려는 피피페들의 불간해 하고있다. 이로부터 피피페당은 미국의 인권유린행태에 대해서 아닌보살을 하면서 여론의 이목을 면대로 돌리기 위해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그토록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남조선피피페당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더욱 확대하는것으로 극도에 달한 자들의 통치위기를 가세하려고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정음회국정개입사건은 집권층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피피페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때문에 피피페당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요란하게 벌이고 《종북》광풍까지 일으켜 민심의 분노를 누착하고 파멸의 함정에서 헤어나보려고 피고이고있는것이다.

남조선피피페당이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소동으로 저들의 반역죄악과 추악한 대결적정세를 가리우기에는 때가 늦었다.

미국상의 인권유린행태에 대해 바른말 한마디 못하며 집권층공공하는 싹새같은 추종들은 신성한 인권을 대하여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피피페들이 아무리 피피페를 돌리우는데도 그것은 자주도 없는 인권유린행태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주구가 떠벌리는 황당무계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피피페당은 미국의 범죄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다가가는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최 철 순

##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자

남조선에서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한 피피페당의 정체를 로워에 대한 각계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9일 남조선의 청년전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 민주규권위반으로 락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주장을 하나 없는 《정부》의 중장을 그대로 받아온 판결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회에서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나 자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박근혜

주, 평등,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단념나 강당을 만들수 있고 이에 대해 말할 자유조차 금지된것이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통합진보당 성원전진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기소하고 진보정당해산규탄집회를 불허한다는 폭언이 울려나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맞았기때문에 해산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의 국면전환용이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울것이라고 성명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전국여성전대도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보복정치, 저지름을 하자는 기조라고 피피페당해산규탄집회를 불허한다는 폭언이 울려나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맞았기때문에 해산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의 국면전환용이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박근혜

2년전에 관련부정선거를 막았으며, 2년동안 부정부패의 장본인을 제재해 처벌해도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할것은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주를 짓밟고 민생파탄을 불어오며 탄압을 가하는 집권자는 땅장 물러나라고 외쳤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장본인을 처벌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한번 떨쳐나설것이라고 하면서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독재광의 정체를 드러낸 《종북》소동

남조선에서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한 피피페당의 정체를 로워에 대한 각계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9일 남조선의 청년전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 민주규권위반으로 락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주장을 하나 없는 《정부》의 중장을 그대로 받아온 판결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회에서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나 자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울것이라고 성명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전국여성전대도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보복정치, 저지름을 하자는 기조라고 피피페당해산규탄집회를 불허한다는 폭언이 울려나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맞았기때문에 해산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의 국면전환용이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박근혜

2년전에 관련부정선거를 막았으며, 2년동안 부정부패의 장본인을 제재해 처벌해도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할것은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주를 짓밟고 민생파탄을 불어오며 탄압을 가하는 집권자는 땅장 물러나라고 외쳤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장본인을 처벌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한번 떨쳐나설것이라고 하면서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하고 비린철을 두들기며 그에 대한 탄압으로 출세들의 등을 떠밀어주었다.

피피페정권의 이러한 망발이 황신을 비롯한 남북인사들과 진보세력에 대한 포괄적인 탄압명령이라하는는 흔한 예지도 찾아내고있다. 회담정치연구포럼 대외 황선에 대한 피피페정권세력의 정치적탄압행위는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미 황선이 《북의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수백차례나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춰워 립건하는 망동을 부린 파쇼광들이는 얼마전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사무실과 주택에 대한 기술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보수단체가 그의 《북한》활동을 고발했다는것이 그의 이유이다. 그리고 황선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최일표도 신은미에 대해서도 남조선에 제 마을 대대 퍼지 못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이고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화된 정황을 꼭, 파장》했다느니 뭐니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인민정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야만의 사회 남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인건에 대한 뜨거운 사랑, 헌없는 동포애의 정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 그가 자기 소감을 피력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고도 자연스러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극우보수분자들이 그의 소행을 물고늘어지자 피피페당은 때를 기다린듯이 미천개처럼 날뛰며 그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모신 배후와 탄압을 가하고있다.

인간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수조차 없게 하는 극악한 인권유린악마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피피페를 두들기 동족을 모해하고 외세에 피어 나고 돌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하고 추악한가!

피피페들이아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버리고 유린하는 용납 못할 범죄자이다.

회담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 대한 피피페당의 탄압소동은 저들의 추악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정당화하고 모략의 장막을 제거하기 위한 비렬한

《세월》호침몰사건과 정음회국정개입사건으로 집권층내부의 위기에 몰린 피피페정권은 각계 진보정당을 거당하여 중세적인 《너머사건》을 방불케 하는 《종북몰이》소동을 일으키고있으며 민심의 이목을 면대로 돌리고 파멸의 함정에서 헤어나보려고 발발하고있다.

이것이 그들이 풀고있는 또 하나의 불운한 속심이다. 황선과 제미동포단체에 대한 피피페정권세력의 탄압행동이 유언이 아니라 명백히 그들의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실은 현 피피페정권세력의 망동을 그대로 두는것은 남조선인민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절대로 기대할수 없고 북남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피피페들이 위기에 몰린 때마다 벌려놓는 《종북몰이》소동은 더이상 통할수 없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독재와 폭압, 북남대결에 명줄을 걸었던 《유신》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경훈들은 피에 주린 살인마들을 고발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전쟁시기 피피페에 의하여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해가 계속 발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와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에 민간인학살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3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굴작업을 벌인 결과 보도연맹사건관련 희생자들의 유해 39구를 발굴하였다고 하면서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의 진격에 겁을 먹은 리승만파괴도당은 부끄러운 민중을 위해 집단학살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진주에서 벌어진 보도연맹평계자들에게 대한 학살사건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에 피피페가 검찰, 경찰이 남조선의 114개 지역에서 무려 1만 7 700여명의 보도연맹성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해방후 리승만파괴도당은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 인도》한다는 미명하에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수십만명의 인민들을 강제로 가입시킨 후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을 도처에서 재판도

없이 마구 학살하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피피페들의 살인만행이 얼마나 야수적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한 다음의 조사문서내용을 통해 잘 알수 있다.

《사건정황은 유해들이 두집, 세집으로 총출이 있었으며 그 주변에서는 학살에 리용된 수많은 탄발통도 수집되었다. 조사결과로 볼 때 당시 민간인학살은 현장에서 직접 감행되었고, 경찰들이 렬을 지어 민간인들을 끌어안은 후 등뒤에서 총살한것으로 보인다. 유해와 유품상태를 분석하고 증언들을 종합한 결과 이곳에 전쟁당시 학살당한 70여명의 민간인 유해가 매장되어있을것이라고 추측된다.》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행위 보도연맹사건은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일부는 오히려 립군해상에 사 산해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도 하였다. 마산형무소에서 같은 시기에 700여명이 총살되거나 바다에 집산수장되었다.

## 재미동포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남조선에서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한 피피페당의 정체를 로워에 대한 각계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9일 남조선의 청년전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 민주규권위반으로 락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주장을 하나 없는 《정부》의 중장을 그대로 받아온 판결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회에서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나 자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울것이라고 성명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전국여성전대도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보복정치, 저지름을 하자는 기조라고 피피페당해산규탄집회를 불허한다는 폭언이 울려나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맞았기때문에 해산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의 국면전환용이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박근혜

2년전에 관련부정선거를 막았으며, 2년동안 부정부패의 장본인을 제재해 처벌해도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할것은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주를 짓밟고 민생파탄을 불어오며 탄압을 가하는 집권자는 땅장 물러나라고 외쳤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장본인을 처벌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한번 떨쳐나설것이라고 하면서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미동포단체들이 재미동포교수의 정당한 활동을 《종북》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피피페당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재미동포교수 신은미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종북몰이》가 동포들속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종북몰이》는 신은미에 대한 탄압을 더욱 단층하게 만드는것은 집권자의 동생 박지민이 도친이다.

그는 정음회가 끌려가지 거지말을 하면서 사건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것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12월 15일 검찰로 향했다.

이분이 아니다. 남조선언론들은 전 피피페정부장 남재준이 사퇴한 주요원인이 정음회, 경찰 《권력3인방》과의 마찰이라고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음회측에서는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던 정보원의 국장급인물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남재준은 정음회측에게 어떤 사안을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런 참사는 정음회와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는 집권자의 동생 박지민이 정음회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남재준은 정음회의 눈밖에 났다. 지금 피피페정권내부에서는 정음회의 인신공격이 《권력3인방》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흥분하고 있다. 정음회와 대결하였다가 목이 달아난 권력자들이 한들이 아니라고 한다.

다무기 남조선당국은 신은미와 관계되어있다고 결코 못말려 재미동포통일운동단체들도 탄압의 마수를 뻗치려고 하고있다.

성명은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나가는 신은미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그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실들은 정음회와 집권자를 끼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청와대를 뚫어무릇 하겠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일제식민지통치와 민족분열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뻔뻔히 극악한 친일매국노인 문장규를 피피페무총리후보자로 추천했던자도 다름아닌 정음회였다.

이 청와대의 지대로 정음회국정개입사건의 본질을 통탄하듯이 《문건무출》로 고착시켰고 얼마나 침울하게 말하든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최근 정음회국정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긴급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지》는 응답이 65%에 달하였다.

정음회국정개입사건은 남조선정치의 부패성과 추악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이런 색은 정치를 놓고 그 누구의 체제를 시비질하는것이아말로 양천대소할노릇이 아닐수 없다.

색은 《정권》, 색은 정치는 망하기마련이다. 정음회국정개입사건으로 하여 피피페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후 최악인 30%계선으로 곤두박질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 사건을 1974년 8월 당시 미국대통령 발명찰청의 전 경찰관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역을 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번지자 청와대와 《세우리당》, 검찰은 당황장조하여 어쩔바를 몰라하고 있다. 경찰내부에서는 검찰의 강압수사가 자살의 원인이란 주장이 나오고있다. 청와대도 정수석실의 자살한 경찰관에게 사죄를 인정한 걸러준다. 《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관자살사건은 피피페정

#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주적은 미국이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후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공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적립장은 올해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평화로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다. 올해 조선반도의 경제호황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협정조성에 제동을 걸고 새 전쟁의 불길기를 몰아오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며 미국이야말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주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우선 우리 공화국의 여러 평화제안들에 힘에 의한 위협과 대결선언으로 대답해나섰다.

우리 공화국은 올해에 세계최대열집지역인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축개발의 진행위험을 가지고 민족의 안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숭고한 애국적, 평화애호의 뜻과 각국의 의지가 비친 국방위협위성명과 특별제안으로부터 정부성명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주동적인 평화제안을 내놓고 그를 안받침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의 평화제안들과 그에 대하는 실천적 조치들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하여 년초부터 조선반도분위기는 지난해와는 달리 완화의 방향으로 호르기 시작하였다. 이 긍정적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역행해나선것이 미국이었다.

미국은 북한관계정책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면서 북한관계를 로골적으로 산통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한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남조선당국에 호소하는 우리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이 발표된 후 며칠만에 남조선에 황급히 날아든 미국부성 부장관이 미국과 남조선은 《북조선의 최근행동과 도발위협성에 우려한다》느니, 《미국남조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과피해당에 단단히 오금을 박고 북남관계가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우리가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대담하게 받아들여 남조선의 기대에 응하여 온갖 각종, 친척상봉행사 개최문제에 원만한 합의를 주며 풀어나갈 때에도 미국은 팔도에 배비한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조선시해 직도상공에 끌어들이 하루종일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벌이면서 조선적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차관봉을 내리는 망동을 부렸다. 뿐만아니라 《리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도높이 벌이면서 북남관계개선에 긴장완화의 흐름을 북남대결과 긴장경화에서 되돌려세웠다. 특히 미국은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를 풀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에 개입하기 위한 제2차 고위급회담을 추진시키려고 음모양모로 획책하였다. 앞에서는 낮간지름계 《북남관계개선을 지지한다》고 떠벌이고 뒤로는아사서는 남조선의 국유보수세력과 인간살배기들을 내몰아우리를 모독하는 때를 살포하게 하고 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서해연접지역과 군사분계선에서 총포사격을 가하며 군사적충돌을 일으키도록 부추김으로써 제2차 고위급접촉이 중지 개시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근혜를 만나 그의 《통일대박》구상이 《애우 좋은 견해》라고 우열되었는 어떻게 해서나 신식민지하수인인 남조선피해당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홍수통합》하게 하고 전진성을 가로막고있고 남조선의 지배주의의앙을 발로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대해서도 오만상을 펴뜨려서 걸음걸을 가로막아나선 미국은 민족의 원수, 통일일의 원수이다.

미국은 또한 온 한해동안 대조선적시정책을 한사코 유지강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실시시키며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보다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우리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렸지만 미국은 속수무득이었다.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과피해당과 야합하여 《리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이면서 핵합작합을 비롯한 각종 타락수단을 끌어들이고 뒤로는아사서는 남조선의 국유보수세력과 인간살배기들을 내몰아우리를 모독하는 때를 살포하게 하고 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서해연접지역과 군사분계선에서 총포사격을 가하며 군사적충돌을 일으키도록 부추김으로써 제2차 고위급접촉이 중지 개시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근혜를 만나 그의 《통일대박》구상이 《애우 좋은 견해》라고 우열되었는 어떻게 해서나 신식민지하수인인 남조선피해당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홍수통합》하게 하고 전진성을 가로막고있고 남조선의 지배주의의앙을 발로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대해서도 오만상을 펴뜨려서 걸음걸을 가로막아나선 미국은 민족의 원수, 통일일의 원수이다.

미국은 또한 온 한해동안 대조선적시정책을 한사코 유지강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실시시키며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보다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우리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렸지만 미국은 속수무득이었다.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과피해당과 야합하여 《리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이면서 핵합작합을 비롯한 각종 타락수단을 끌어들이고 뒤로는아사서는 남조선의 국유보수세력과 인간살배기들을 내몰아우리를 모독하는 때를 살포하게 하고 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서해연접지역과 군사분계선에서 총포사격을 가하며 군사적충돌을 일으키도록 부추김으로써 제2차 고위급접촉이 중지 개시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 악마제국의 멸망은 력사의 필연

세계의 《지도자》로 자처하며 온갖 못된것을 일삼는 미국이 사신관들의 운명에 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외정책전문가들도 인정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 7차 세계경제회의에 미국의 한나라는 대외정책전문가들이 참가했다. 그들중에는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작성에 깊숙이 관여해온 미국 하버드대학 대학 교수인 조세프 나이와 공화당의 외교안보정책작성에 깊이 참가해온 전 미국부성 장관 리처드 하스도 있었다. 조세프 나이는 현재 중화과 우크라이나, 동북아시아 등 도처에서 개최되고있는 지정학적학자들이 미국의 힘의 약화와 권력분산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하였는가 하면 리처드 하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지배구조는 이 힘 상실되고 국제적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미국의 의식하는 나라들의 수도 크게 감소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내 정책전문가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러한 개탄의 목소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자처하던 미국이 이제 는 자기사태를 다 산 력사의 필로로 굴러떨어지고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이것은 말할필수 없는 미국의 운명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량살육한 땅에 뿌리박고 아프리카흑인노예들의 피땀에 의해 찾아오른 살인왕국이다.

미국이 피침감을 한 물골을 세상에 드러낸 때부터 이 행성에서는 전쟁의 총포소리가 멎은 날이 없었다. 동서고금에 악명을

떨린 침략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국가의 형성되며 제 1차 세계대전발발까지의 130여년간에 114차의 크고작은 침략전쟁들과 8900여건의 군사적간섭도 평등을 본래의 10배이상 확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런 미국이 맹진종시후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될수 있는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다. 원래 조련이 해체되었지만 않았더라면 미국이 현재 파괴되었을것이다. 미국이 페르시아전쟁을 치르렀을 때 미국잡지 《타임》이 《맹진전쟁 하어도 약체화되고 붕괴에 직면하고있는 나라로 리해되고있던 미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활약하고있는 우리는 미국사람들 자신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보도한것을 놓고서도 이미전부터 미국의 붕괴가 기정사실화되어있었다는것을 알 알수 있다.

맹진종시는 망해가던 미국에 뜻밖의 횡재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멸망을 지연시켜주었을뿐이지 그 운명을 완전히 전환시켜준것은 아니었다.

동서맹진의 상성이었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미국은 캐나다, 페르시아, 소말리아, 아이리, 발칸지역 등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을 대한 로골적인 침략과 군사적개입, 내정간섭을 일삼으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수입에 미쳐달려왔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는 아프리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련속 전쟁을 벌여놓았다.

미국이 감행하는 극악한 국권유린, 인권말살범죄를 목격하며 세계는 치를 떨고있다. 반미자주를 위한 투쟁이 세계곳곳에서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일국세계화책동에 대처하여 다국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노력도 강화되고있다.

반면에 미국의 힘은 날이 갈수록 쇠퇴해지고있다.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침략전쟁에 돈을 마구 탕진하다니나 경제가 꺾어지고 더이상 강압할수 없을 정도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벌수없이 군비를 축적하지 않았던 미국이었다.

중동에서 반미반전쟁을 도발하려던 미국의 책동은 호지부되지고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로씨야와의 대결에서도 미국은 밀려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해오려고하고있었지만 실현가능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세계경제에 대한 판문점에서 미국은 지배적지위를 빼우고있다. 서방7개국수뇌자회의를 통해 세계경제를 좌우하려는 미국이 신흥경제국들이 많이 들어있는 20개국수뇌자회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브릭스의 역할이 확대되고있다.

미국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해졌으면 이스라엘국방상이 미국부장관 케리가 들고다니는 중동《통일》구상에 대해 망상이라고 조소하였는가.

오늘 미국이 아무리 으르렁거리려도 그것은 이말배진 승냥이의 울부짖음에 불과하다. 온갖 악의 화신, 악마의 고지마를 불러고 망해가는것은 필연이며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미국이 최후말막을 해도 력사발전의 이 법칙을 어길수 없다.

강 철 수 ♣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러차례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이렇게 모두 놓치고말았다. 저들의 주도하에 남이 북을 통제로 하려고있는 《홍수통일》을 이루도록 하자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지난 2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장관 케리가 박

##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임상 표명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시르가 14일 한 회의에서 언설하면서 나라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모든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임무를 표명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고 국방분야에서 국산화를 실현하며 모든 정당들이 민족적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이스라엘의 살인만행 규탄

알제리외무성이 1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군의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10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팔레스타인정부 고위관리를 잔인하게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략인단죄하였다. 알제리정부는 독립국가를 창건하고 합법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타인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미중양정보국이 세계 각국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고문만행사들은 미행정부안에 체계적인 범죄를 감행하고 국제인권법을 관폭하게 위반하는것을 승인한 명백한 범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범죄행위에 책임있는자들은 재판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에서 련기된 정책들이 미국정부내의 고위지도층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변명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선중앙통신】▽

## 《원조》의 간판에 비친 추악한 모략음모

오늘의 세계

등지고 간벽에는 다는 말 이 있다. 절으로는 《협조》(원조)니 하는 간판을 내흔들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 는 남을 위해 주고자 하는 리속을 세우는 데 이골이 난 미국에 신통히 어울리는 말이다.

미국제개발자의 더러운 행적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최근 미국제개발자가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서 이른바 문화개발이라는 명목밑에 반정부세력들을 끌어모아 정 부부준복음주의자이다. 탄도되었다. 미국의 AP통신이 이에 대해 폭로하였다. 미국제개발자가 주변국가들의 정부부준복음주의에 가담한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반석같은 얼마진 정기의 울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정변을 준비하는데 미국제개발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그전에도 미국제개발자는 이전 쓰련지역의 일부 나라들에 막대한 자금을 뿌려 《색갈혁명》을 일으키고 정 권을 교체하는데서 주역을 놀였다. 반미경향이 강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미국제개발자의 기분활동 지역으로 되고있다. 최근에도 미국제개발자 관계자들은 볼리비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 반국가범죄자들에게 자금과 위성통신기계를 제공하면서 정부를 반대하는 테로행위를 감행하도록 부추키다가 물

의를 일으켰다.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미국제개발자의 모략음모책동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다.

미국제개발자로 말하면 미국의 모략적인 경제《원조》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국부정산하 행정기관이다.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 회계년도 국가예산에서 지출된다. 현재 이전 쓰련지역 나라들을 비롯한 약 100개 나라에 지부를 두기고는 미국제개발자는 《원조》를 하거나 다른 나라를 특하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합법적인 경제적 침략의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대우기 주목되는것은 미국제개발자가 《원조》의 랑을 쓰고 세계를 줘다 하게 들여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모략책동에 기를 쓰고 매여 달리고있는것이다.

프랑스의 한 사회활동가가 미국제개발자가 표방하는 《협조》와 《후원》이란 가면에 불과하며 그의 진짜 역할은 미중앙정보국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깨닫힌것은 빈발이 아니지 않다. 심지어 미국제개발자의 활동내막은 미중앙정보국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통보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리유는 뻔하다. 미국제개발자의 움직임이 공개되어서는 안될 국비자료들이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범죄행위들이기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제개발자는 몇푼의 돈을 주는 대가로 자금을 받는 기관들과 성원들을 대한 구제적인 자료를 제공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료들은 즉시 미

국의 정보기관들에 넘겨져서 된다. 만일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인 경우 돈을 가져오지 않더라면이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제개발자는 비정부기구의 모자를 쓰고 미국을 위해 일하는 어중이떠중이들, 반정부세력들을 틀어쥐고 그들에게 자금과 물자 등 각종 지원을 주고있다. 임의의 순간에 해당 나라에서 불순세력들을 앞세우고 저들의 구미에 맞는 정권을 세워 정치적으로 조종할수 있는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미국제개발자의 마수가 뻗진 곳 어디서 예상치 않았던 정치적모략사건들이 발생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지어는 그것이 군사적충돌로 번져지고있다.

프리가 걸린 밧히는 뻔하다. 미국이 제1차부터 《원조》라는 화려한 면사로 미국제개발자의 정체를 가리우려고 해도 모략과 음모의 능수, 침략의 기림으로서의 추악한 본색은 절대로 가려울수 없다.

2년전 로씨야에서는 미국제개발자 성원들이 비정부단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뿌려 불순한 목적을 이루 어보려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볼리비아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적으로책동에 매여말라다가 추방되었다. 이러한 실례는 허다하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제개발자의 추문사건들은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 2월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감행한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사적차 방승회사를 돈으로 매수

하여 저들의 어용나팔수로 써먹으려다가 들장이 나 개교망신하였다. 당시 방승시간 1분당 700~1000US\$를 쥘려주었다고 하니 세계적규모에서 미국제개발자가 탕진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이 자국내에서는 재정위기로 정부부채와 소송까지 벌이며 고색해물 늘어내면서도 《원조》의 명목으로 돈을 물쓰듯 하는것을 보면 세계제국에 야에 이만저만 만장하지 않았다하는것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미국정책들까지 미국제개발자의 행위를 두어고 완철히 어리석은것이라고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겠는가.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미국이 내흔드는 《원조》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적이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문화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울가미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집행의 최후대가 다름아닌 미국제개발자이다. 미국제개발자 손을 끌어들이는것은 제산중에 칼을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제개발자의 모략음모에 환멸을 느끼고 그 출개들을 지경망으로 쫓아내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미국이 지배주의의앙에 매여달릴수록 파멸의 구렁텅이는 더욱 깊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희

## 파키스탄에서 테로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 발생

파키스탄에서 16일 테로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날 테로분자들이 헤버르 파크트르와우의 메사르에 있는 한 학교건물에 뛰어들어 수백명을 해고했던 학생들을 향해 총질을 하고 대 만동을 부리던 끝에 자 목에 로폭격을 감행하였다. 학교내부에서 33차례의 요란한 폭음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141명이 목숨을 잃고 건물들이 무너져 파괴되었다. 파키스탄정부는 즉시 사태를 수습하고 사회적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 영국의 주요비행장들에서 컴퓨터장애로 소동

영국의 주요비행장들에서 12일 컴퓨터장애로 인한 물건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비행장들에서 비행기운행이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런던의 남부와 서북부에 있는 비행장들에서는 비행기들의 리륙이 금지되어 려객들의 불만을 자아냈으며 히스로비행장에서는 착륙 지연으로 비행기들이 다른 비행장으로 우회하지 않

## 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 고조

일본인들속에서 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최근 교도통신이 발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당국자가 《집단지시위행 사용인자》를 비롯한 다른 것들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감을 품고 있다. 55.1%에 달하였다.

특정비밀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일본인들